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3. 4. 26.(금)

국가교육위원회 제29차 회의 결과

- △초등학교 1, 2학년 신체활동 관련 통합교과 신설,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간 확대(102→136시간)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 결정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는 4월 26일(금) 16시에 열린 제29차 회의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교육부의 초·중학교 신체활동 강화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

국교위는 지난 제28차 회의('24.4.12.)에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안전에 대해 약 4시간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요청한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신체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원 공감대를 이루었다.

구체적인 개정 추진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 즐거운 생활 교과를 통한 실질적인 신체활동 보장 가능 여부, △교과 분리에 따른 기존 즐거운 생활 교육과정의 추가적인 개편 방향, △신체활동 내실화를 위한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합의에 이르기 위해 장시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고, 최종 의결은 표결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종 의결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결 사항>

1.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하여 통합교과를 신설하고, 기존의 '즐거운 생활'의 음악과 미술 관련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강화하는 통합교과로 개정을 추진한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운영 시간을 34시간 확대 (102 → 136시간)하여 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추진한다.
3. 초·중학교 신체활동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4.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활성화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교 신체활동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 (초 1, 2 신체활동) 찬성(9명), 반대(2명), 기권(2명), 중도 이석에 따른 표결 불참(4명)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찬성(9명), 반대(2명), 기권(3명), 중도 이석에 따른 표결 불참(3명)

국교위 이배용 위원장은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신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무엇보다 학생을 중심으로 최우선 고려” 하였다고 밝히고,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신체활동 관련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였다.

오늘 결정에 따라 향후 국교위는 교육과정 개정 내용과 일정 등 구체적인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총괄>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교육발전총괄과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사무관	권민경 (02-2100-3330) 신민규 (02-2100-3336) 이승재 (02-2100-3363)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교육과정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과 장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조성연 (02-2100-3350) 이현석 (02-2100-3351) 이해룡 (02-2100-3354)